

충남의회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



충남의회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VOL. **95**

충남의회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VOL. 95

CONTENTS

CHUNGCHEONGNAM-DO COUNCIL

002	개회사
006	본회의
007	찾이슈
015	의원논단
019	5분 발언
030	간급현안질문
031	도정질문
035	상임위원회
048	특별위원회
055	연구모임
057	의정토론회
059	주요안건 처리결과
072	포토의정
080	2022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



[표지이야기]

충남 보령시 주산면 보령댐 하류 웅천천부터 6.7km 구간이 벚꽃 터널을 이뤄 장관을 이루고 있다.



충남의회 95호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편집 | 홍보담당관 기획홍보팀
- 전화 | 041) 635-5385

- 팩스 | 041) 635-5293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봄을 맞아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비회기 기간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울러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지난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갈등과 분열, 대립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제 이를 뒤로하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 드러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미래를 향한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청도의회도 더욱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이렇게 악전고투를 벌이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2년을 넘기고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며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학교에 매일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 더 좁아진 취업 문 앞에 선 청년들, 경로당조차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없는 어르신들, 가족·친지들과의 만남까지도 제약받는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의장으로서 각 국면마다 도민 여러분께 매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가팔라졌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이 연속적인 의료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희망을 품어 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코로나 일상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연일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정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 더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별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전면등교를 하는 등 탄력적 운용방안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의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2023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8조 6,06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23억 원이 증액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인해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충남에 발생한 산불은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경북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과 삶의 터전이 훼손됐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80%는 실화·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고,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로 나무와 함께 사는 동물과 곤충도 많이 희생됐습니다.

숲이 잿빛으로 변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외형을 되찾기까지는 30년, 온전히 건강한 숲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산림은 인간과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터전이자 아끼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 계획과 진화대책 수립 등에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더불어 해빙기를 맞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안전 점검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법과 규정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북과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의 지원 업무를 맡으셨던 충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 故 고은호 소방경님께서 안타깝게 순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소방관님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과 각종 안전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안 심사 시 도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사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계절의 변화를 거스르진 못합니다. 새봄을 맞아 어김없이 새 생명을 틔우는 초목처럼 충남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은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도민들께 더 큰 희망과 감동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새봄의 온기와 활력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명선**

충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1회 추경, 58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58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598억 원 늘어난 9조 7,441억 원, 교육청은 2,162억 원 증액된 4조 4,511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이틀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도 추경안은 1건 4억 3,518만 원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도 추경안은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의 불요불급을 이유로 4억 3,518만 원이 일부 삭감됐으며, 교육청 추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53개의 안건을 가결

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등 5개의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제11대 들어 충청남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라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이 도의 발전을 이뤄낸 동료의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후 시·군의원 지역구 및 정수 조례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금강 회복 및 농어민 상생 위한 해수유통 촉구

충남도의회는 1월 27일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금강하구역 자연성 회복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금강 해수 유통을 촉구했다.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금강호의 수질 악화 및 토사 유입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 회복을 위해 제안됐다.

전 의원은 “금강하구둑 흐름 단절 이후 부작용으로 수질 악화, 지속적인 녹조 발생, 생태계 단절, 퇴적토 증가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성 회복 및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대선공약 채택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강하구둑은 1990년 준공 이후 충남과 전북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며 염해와 홍수방지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현재 금강호 수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나빠졌으며, 녹조 독성문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도민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낙동강하구 해수유통 실증실험 결과 회류성 어종이 돌아오고 생태복원 가능성을 확인했다. 식수와 농업용수의 염해 피해는 없었다”며 “금강하구도 현 배수갑만을 활용한 실험으로 해수 유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간 80만 톤의 토사가 쌓여 갯벌의 사막화가 진행돼 수산업 붕괴 현상에 직면했다”며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
금강하구호 생태계 회복
실증 실험 통한
해수유통 제안
”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확정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등 53개 안건처리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촉구
충남 핵발전소 건설 반대 등 5개 건의안 채택



금강하구역 자연성 회복과 상생발전, 정부는 해수유통 적극 추진하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충남도의회, 감염병 대응 위한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는 1월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의료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지역에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역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비롯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의료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라며 "특히 우리 충남도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1.8명에 못 미치는 1.5명에 그쳐 의료공백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충남 서부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충남혁신도시에 의과대학 설립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내포신도시에 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

”



충남도의회, 해저터널 방식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충남도의회는 1월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하루 평균 8만 9,000대의 차량 통행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자연재해 및 대규모 교통사고 발생 시 전면 통제되는 서해대교의 우회 대체 도로로 '당진~화성 해저터널'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서해대교는 국도 77호선을 당진~평택~서울로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극심한 차량정체로 우회 대체 도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 안섬포구에서 화성 남양호를 해저터널(8.4km)로 연결 시, 1조 6천 000억 원 이상의 연륙교 건설보다 적은 7,458억 원이 든다. 또 당진 송악~화성 우정까지 이동거리가 38km 단축되고, 서해대교 통제 시 이동시간도 45분에서 20분으로 줄어 경제성·교통성·시공성·안전성 등에서 가장 유리하다.

홍 의원은 "2015년 12월 낙뢰로 인한 교량 케이블 화재로 16일, 2006년 10월에는 29중 추돌사고로 1일간 서해대교가 전면 통제됐고, 2019년 9월 태풍 '링링'으로 차량 통행 속도를 50km/h 이하로 제한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저터널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개통된 보령해저터널, 앞으로 건설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연계한 서해안 국가해안관광사업 도로망 완성 등도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상습정체 극심한 서해대교 대체 도로 건설 필요”

”





충남도의회 “장애여성지원법 제정하라”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충남도의회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3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2개뿐으로, 대다수 법 조항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 산후조리도우미 등이 거론됐지만, 추상적·포괄적이며 장애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 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이 부재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기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경제 대전환 물꼬 터야”

“

15일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통일적·체계적
사회적경제 추진 위한
법적 토대 필수…
조속한 법 제정 촉구

”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3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나(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에 따라 근거 법률과 부처가 나누어 분절적 정책추진과 지원으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충남 핵발전소 건설 강력히 반대”

“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강조

충남도의회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핵발전소(SMR)를 건설하지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충남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3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력자립도 226%가 넘는 충남은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충남도민은 수십 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통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핵발전소의 입지를 정하는 것은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여 만든 전기는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모든 과정은 도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충남도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발전 옹호론자들의 말대로 SMR이 소규모라 전력망 연결이 쉽고 분산형 전원으로 알맞고 안전하다면 왜 굳이 멀고 먼 충남에 지어 송전 손실을 감내하고 송전탑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면 충남도민들은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핵발전소 충남 건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정부 대응 촉구

“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채택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항의해야”

충남도의회는 3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19년 8월 실시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근거로 “충남의 미세먼지 70%는 중국발이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는 중국 방향에서 100%로 유입되어 대기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염화수소 등 각종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미세먼지와 만나면 더 독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피해를 떠안고 있는 충남도민을 대표해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및 국비지원” 촉구

“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식량주권 확보·
도농 양극화 해소,
지방재정 한계

”

충남도의회가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농어민수당'의 국가정책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3월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득양극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도는 2020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가 당 8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다 올해부터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부터는 각 45만 원씩 농어가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농어민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등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정부에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도농 간 소득양극화와 농어촌지역 젊은이가 부족해 농어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며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농어촌 현실을 감안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전익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2022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농어촌 소외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농어촌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 정치인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부족한 농어촌의 정치력은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한 것이다. 선거구 간 과도한 인구 편차가 민주주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이러한 판단은 투표 가치의 평등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구중심의 획일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다. 이를 반영해 선거구를 조정하면 충남에서는 서천과 금산의 도의원이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강원 영월·정선·태백·평창, 충북 영동·옥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장흥,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의 광역의원 정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지역 광역의원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만의 문제는 아니

다.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이미 상당수 농어촌지역은 소멸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비례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결국 도농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역의 대변자가 줄어들면 농어촌지역은 각종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나 현안·민원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정치력 확보를 위해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 대표성을 감안한다면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 방식이 아니라 면적, 생활권, 지역특성, 교통,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해 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구가 적다고 의석수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면 당연히 농촌과 도시의 정치력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

보령해저터널,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 기폭제 되어야

김한태 충청남도의회 의원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 서해안권의 심장 보령에서 탄생했다. 충남 보령시 신항동 대천항과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이 바로 그것이다. 해수면으로부터의 깊이가 최대 80m, 연장이 6.927km로 전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다.

대천항과 보령 앞바다에 있는 원산도를 직접 연결해 대천항에서 원산도 북쪽에 있는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까지 걸리는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해 지역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해저터널은 단순히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을 넘어, 원산안면대교에 이어 원산도에서 대천항까지 터널로 연결됨으로써 바다에 의해 단절된 국도 77호선이 최종 완성된 것으로 그 의미와 파장이 상당히 크다.

특히, 해저터널 개통으로 보령과 태안지역이 동일 생활권이 됨은 물론 충남을 핵심축으로 국내 관광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보령·태안 등 서해안권 문화관광·해양레저 등 관광 분야를 비롯해 주민과 방문객 이동 편의 증진, 원활한 물류 처리 등에 이바지하며 충남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해저터널을 계기로 중부권 제일의 관광보고(觀光寶庫)인 보령과 태안지역의 관광자원, 영목항·원산도·천수만 관광코스 등과 제휴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도내에 산재한 보석 같은 관광 및 휴양명소와 연계시켜 충남을 대한민국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지구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가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도화선이 된 원산도에 대한 고품격 숙박시설 조성 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와 원산도는 물론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충남의 보물 같은 섬들에 대한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도서 지역을 서해안 관광지구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령해저터널과 연계되는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태안~서산 고속도로 등을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반영시키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어촌도로와 마을하수도 정비, 교육·문화·체육 및 의료·복지·편의시설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보령해저터널이 충남에 던져주는 의미와 과제는 실로 중차대하다. 미래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과 그동안 소외돼 낙후된 원산도 등 섬 지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령해저터널이 우리나라의 섬 문화·해양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이정표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충남도가 서해안권 활성화를 위한 대장정의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미래 성장동력 수소 산업 적극 육성해야



이계양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남형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가 낳은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현재 우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사람 중심의 경제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유행으로 ESG가 주목받고 있다.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Environment),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Social),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 체계인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다. 기업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인정받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은 수소 산업 활성화에서도 나타난다.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경제에서 그린 수소 경제체제로의 탈바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수소차 생산 확대, 수소 시범도시 등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수소경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다. 특히 충남은 우리나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지리적·지정학적 위상 활용으로 수소 생산·보급 거점 역할에도 유리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미래세대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충남의 교통사고 건수는 9,404건, 사망자 수 308명, 부상자 수는 14,087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 6.5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다.

충남도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은 3.3%로 전국 평균 1.5%의 2배다. 특징은 과속 성향이 높고, 65세 이상 고령자(운전자, 보행자) 인구분포 대비 높은 사망률, 농촌지역 내 화물차·이륜차·농기계 사고가 잦다는 점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따라 지난해 전체 사망자 308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가 149명(48.4%)으로 50%에 육박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이 미흡하다는 걸 보여준다.

도의회는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8년 이후 감소세다. 하지만 안전대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가는 의문이다.

안전속도 5030,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확대, 화물차와 농기계 사고 감소 등 대책의 지속 추진, 선진교통안전 문화와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 모든 공공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이 절실하다.

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이제 노동전환지원이다!

안장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현재 한국은 기후변화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후 위기 극복정책 중 하나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36년 이상 충남과 수도권 등지에 전력을 공급해오던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가 2020년 12월 30일 폐쇄됐다. 그 결과 화력발전소가 폐쇄된 보령의 경우 인구 10만 명이 무너져 버렸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에 따르면, 현재 전국 화력발전소에 일하는 인원은 총 2만 2천여 명이다. 이 중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1만여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할 만큼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시 경우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 비중이 45%를 넘어가게 되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나 전기차 보급·확대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업률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 도내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전

국 59기 중 절반인 29기가 자리 잡고 있고, 현대차 아산공장도 존재한다. 발전소나 공장의 폐쇄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면 도민들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다.

이에 우리 충남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는 불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수행해 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노동자 지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조례는 탄소중립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 관련 정책 수립 시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현재 닥친 문제를 받아들이고 신속히 대응한다면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5분 발언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남의회

농번기 인력 확보 대책 마련해야

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1. 18.



정광섭 충청남도의원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확대
- ◆ 외국인 지원팀 설치 및 정보플랫폼 구축 제안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150일)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90일, 150일 계절근로자의 경우 75% 이상 농가가 최소 근무 일수를 보장하지 못하면 향후 1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다. 또 2017~2021년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현황은 1만 9,128명으로 충남은 전국 대비 2.7%(525명)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농촌의 현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라며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를 확대해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선제적으로 농촌 외국인력 지원팀을 설치,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3대 명약 구기자 다방면 육성정책 필요

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1 .18.



김명숙 충남도의원

◆ 전국 생산량 70%, 농산물소득 충남 최고...
“건강식품 시장 다크호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구기자를 전국 대표 특산물로 키우기 위한 충남구기자산업의 다방면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기자는 하수오, 인삼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약으로 여겨진 한약재이자 건강식품 시장의 다크호스”라며 “전국생산량 70%를 책임져온 충남구기자 100년의 역사와 고령농가도 재배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남구기자 산업을 다방면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38개 작목 555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구기자가 농지면적 10ha당 1,522만 9,000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삼과 달리 구기자에는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 촉진 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사업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며 “소비자들이 구기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 충남특산물인 구기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구기자 재배시설 지원과 가공상품 개발, 온라인 유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집중육성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농기계 통합관리방안 필요

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1 .18.



안장현 충남도의원

◆ 관공서 보유 노후농기계 매각, 농민 아닌
농기계 매매상만 이득

충남도의회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충남의 현실을 참작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18일 열린 제33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장현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관공서 불용품 가운데 노후 농기계의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불용농기계 매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농기계 매매상의 주머니만 불리는 상황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관공서 불용장비는 실질적인 사용 시간이 짧아 농업 현장에서 사용된 기계보다 내구도가 우위에 있어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라며 “매매상이 이를 대량 구매 후 농번기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상황으로 실 수요자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자산의 관리 전환 및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표적 도농복합도시인 충남인 만큼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을 펼쳐가자”라고 주문했다.

미래교육 위한 인터넷망 고도화 시급

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1 .18.



김 연 충남도의원

◆ 노후화된 학교 인터넷망 지적...
디지털 교육 전환 위한 망고도화 사업 주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 현장에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 등 교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교육 기회의 평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환경 조성 일환으로 2월까지 전국 학교에 ‘기가급 무선망’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IT전문가들은 학교 인터넷망 대부분이 저속장비와 UTP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기존 인터넷망 고도화가 필요하며 규격에 맞는 광케이블과 10G급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 의원은 “도내 25개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학내망 장비 속도, 케이블 용량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기가급 무선장비를 도입해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기회의 평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디지털 환경의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망 고도화 사업을 민간협력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 마련 촉구

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1 .18.



홍기후 충남도의원

◆ 334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학로 개선 위한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협의 강조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갈등으로 충남 도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등하굣길 학생 교통사고 사망은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당진 탑동초등학생이 하굣길 대형 덤프트럭 추돌로 사망했다. 이는 수년간 교육청과 지자체에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요청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미루다 일어나 예고된 참사였다”라며 개탄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지자체는 공사비를, 교육청·학교는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승낙해 위험한 등하굣길에 내몰린 학생들을 구해야 한다”라며 “공유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다. 기관 간의 자산일 뿐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가까이 공유해야 한다”라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호구역 지정차 금지 대책 미흡

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1. 18.



방한일 충남도의원

- ◆ 도내 352개 대체 주차장 마련 시급 ... 도, 시군 업무 차부 말고 적극 협력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시 가중처벌 하도록 한 것.

방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려는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이 폐지돼야 하는데, 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도 대체 주차장을 확보 못 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각 시·군과 협의해 대체 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 갯벌 활용한 생태엑스포 제안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2. 01. 27.



전익현 충남도의원

- ◆ 갯벌 활용한 생태교육·관광자원화, 충남관광 새로운 원동력 될 것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천 갯벌을 활용한 '갯벌생태엑스포'를 제안했다. 유네스코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을 활용해 생태교육은 물론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갯벌의 83%가 물려있는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각종 수산물을 포함해 오염물질 정화, 관광자원 등 우리나라 갯벌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2020년 기준 연간 17조 8,121억 원에 달한다.

특히 금강하구 유부도에는 많은 철새를 품어주는 천혜의 자연 갯벌이 펼쳐져 있으며, 전 세계 300쌍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넓적부리도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자 물떼새의 중간 기착지이다.

전 의원은 "충남도는 올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서천 갯벌을 활용한 갯벌생태엑스포는 충남관광과 생태체험, 세계적인 생태계 보전 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남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회 분회장·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해야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2. 01. 27.



이영우 충남도의원

- ◆ 고령층 증가로 경로당 역할 커져 ... 시군별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노인회의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를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근 충북은 초고령사회에 대비, 2019년부터 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을 부담해 읍면동 책임관리자에게는 월 10만 원, 경로당 책임관리자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천안시를 비롯해 8개 시·군만 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군마다 지원 금액도 다르다"며 "도에서 형평성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충남의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수가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이처럼 우리 도의 노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5개 시·군의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2. 01. 27.



한영신 충남도의원

- ◆ 회원수 감소·지역별 편차 지적... "현장 인원 배치로 등굣길 사고 예방"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는 2019년 4만1,284명, 2020년 4만 802명, 2021년엔 3만 6,08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시·군별 녹색어머니회 운영 현황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천안·금산·서산 등은 전체 초등학교 대비 녹색어머니회 운영 학교 수가 35%에서 40%로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청양·서천·부여 등은 8%에서 14%로 저조하다. 홍성은 운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노란 발자국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포인트마킹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인원이 배치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활성화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충남에서 본격 궤도에 오르나!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2. 01. 27.



김영권 충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안

충남도의회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충남 도내 136개 면 지역 가운데, 인구가 3,000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58개 면에 달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2만 9,59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농촌 기본소득 도입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 찬성 56.8%, 반대 29.2%, 잘모름이 14%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지역,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려해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지역주민의 고령화율, 빈곤율, 인구소멸 순위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산출로 효과성을 입증한 후 도내 전면 시행 및 국가 시책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신도시 지중 송전선로 안전대책 촉구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2. 01. 27.



이종화 충남도의원

5분 발언서 업체 면담·공청회 개최 및 이격거리 확보·완충구역 설정 건의

내포집단에너지시설 154kV(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자파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에 건설 중인 지중 송전선로 공사의 안전성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포 지역주민들이 지중 송전선로의 낮은 매설깊이 때문에 발생할 전자파와 이격거리 미확보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자파에 약한 아이들이 활동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가까워 불안이 가중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2~4mG(밀리가우스) 이상의 자기장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등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들이 있다.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많게는 10.4mG에서 적게는 5.1mG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 주도하에 도민, 관련 부서, 업체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격거리 확보 또는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룡·천안·아산·당진 초·중·고등학교 신설 확정 쾌거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2. 01. 27.



김대영 충남도의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

2022년 교육부 주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학교 신설 관련 충남도가 신청한 5개교의 신설이 모두 확정돼 100% 통과율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중등학교의 신설 확정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 성성2중, 아산 온샘중, 아산 산동초, 당진 해성초 그리고 계룡 대실초등학교의 신설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합리한 학교 신설 규정에 묶여 확정이 미뤄져 왔다. 이에 인근 학생들의 통학 거리, 과대·과밀 학급 문제 등 다양한 교육여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5분 발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던 계룡 대실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이 드디어 확정됐다"며 "이 모든 것은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아산·천안·당진·계룡의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는 절대 양보 없이 꾸준하고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계획에 맞춰 학교를 신축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소외지역 없는 균형발전 이뤄야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3. 15.



조승만 충남도의원

충남혁신도시 부진 지적, 균형발전 특별지원 제외돼 역차별 여론도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혁신도시 추진 속도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도내에서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만 충남도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더딘 충남혁신도시 추진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서해안 관광 지도가 재편되고, 보령과 태안을 잇는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 고속도로 건설사업 동력 확보 등 해수욕장이 있는 두 지자체는 축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에서는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장항선 전 구간 복선화, 삽교역 신설 결정 등의 쾌거를 이뤘고, 도민 숙원 사업인 서산공항 착공도 눈앞에 뒀다"며 "천안·아산도 탄소 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청양군도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도정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홍성의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하고, 균형발전 특별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지역주민들로부터 역차별 여론까지 일고 있다"며 충남도가 소외지역이 없는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독립기념관 광역교통망 구축 촉구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3. 15.



김득응 충남도의원

☛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 국가계획 반영 주장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는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 성지를 대중교통으로 연결한다는 상징적 기대효과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민선 7기 충남도지사 공약임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와 시, 도의원과 국회의원 등이 함께 협력해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업에 대한 천안시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구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하향 조정하면 경제성(B/C)이 기존 분석 결과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에서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립이 추진 중”이라며 “동서횡단철도 천안 경유 구간을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구간으로 병행 추진하면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어 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사고 예방 위한 신기술 도입해야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3. 15.



이계양 충남도의원

☛ 누설전류 문제 막는 신기술 이미 상용화...
축사·시장·공장 등 취약 장소 적용해야

충남도의회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재난이나 화재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3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기사고 예방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산불, 최근의 아산 보일러 공장 화재 등은 전기적 문제로 발생한 대표적 사고들”이라며 “발화 요인이 규명된 화재 가운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58%에 이른다. 전기 차단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예방책은 올바른 전기용품의 사용법 설명이나 권장 사항 등 책자에 나오는 홍보성 대책뿐이다. 좀 더 선제적 예방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02년부터 아크 차단기 의무설치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10% 이하로 감소했다.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누설전류 발생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축사나 하우스, 전통시장, 공장 등 누설전류로 화재에 취약한 지역부터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비료값 지원 확대해야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2. 03. 15.



김영권 충남도의원

☛ 농자재·인건비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에서 영농철을 앞두고 비료·농약 등 농자재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를 원료로 하는 비료값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요소비료를 예로 들며 지난해 20kg당 공급가격이 1만 600원에서 2만 8,900원으로 무려 273%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농협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대비 인상분 80%를 보조, 농가는 3,650원이 오른 금액으로 비료를 공급받는다. 하지만 이 상승분도 농가에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마저도 원예용 비료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원예용 비료 사용 농가는 비료 가격 폭탄을 맞았다”며 “또 농약, 농업용필름, 요소수 등 안 오른 것이 없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1일 최고 18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비료 소요량의 전량을 보조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천안물류단지 공공청사부지로 재정비 요구

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2022. 03. 29.



김연 충남도의원

☛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촉구

천안물류단지 재정비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결단과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물류단지 재정비를 통해 백석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신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적극 행정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백석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6년 동안 독립된 청사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내 공간을 임대, 임시청사로 사용해왔다.

김 의원은 “천안시는 센터를 물류단지 부지로 이전·신축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제출했다”라며 “그런데도 충남도는 유권해석에 대한 부담으로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 센터는 종합운동장 내 작은 공간을 임대해 협소하고 매우 열악하다”라며 “주민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도의 적극 행정과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주민 생존권 위협 채석단지 결사반대

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2022. 03. 29.



김명숙 충남도의원

- 10년간 주민 피해 외면하고 사업 추진... 2050년까지 1.6배의 추가 확장 개발 반대

부여군 은산면 소재의 채석장 면적을 확대해 향후 30년간 채석 단지를 운영하겠다고 충남도에 지정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과 충남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은 2013년부터 10년간 채석장 발파와 채석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 교통 문제, 재산권 침해 등 생활피해가 막대한데 1.6배의 면적을 추가 확장한 채석단지로 30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이번에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스코인더스트리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채석장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운영해 왔으며,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은 큰 피해를 호소해 왔다.

김 의원은 “건강상의 염려, 마을과 생태하천의 경관 피해, 골재 운반 차량에 따른 사망사고, 하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생생물 개체 수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도 손해를 보고있다”며 “수많은 도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환경은 파괴될 것이 뻔하므로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연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파급효과 큰 지역건설업 활성화해야

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2022. 03. 29.



지정근 충남도의원

- 공동주택 등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수주를 향상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건설업계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제정세 요인 등 국내·외의 악재 속에서 고전하는 도내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특히 공공공사에 비해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동주택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3.1%에 불과하다”며 “대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가보면 타지역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남도가 진행 중인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결실 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학교의 지역업체 물품구매율이 30~40%에 그친다”며 “지역업체의 물품구매를 적극적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도 농아인 마중물 복지정책 마련 촉구

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2022. 03. 29.



양금봉 충남도의원

- 농아인 업무 전담 인력 지원 및 24시간 수어통역센터 운영 요구

충남 도내 농아인들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충남농아인협회 시·군 지회 업무전담인력 지원과 수어통역사 확대, 24시간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서천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농아인협회 15개 시군지회 중 12개 지회의 경우 업무를 전담해줄 인력이 없어 농아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지회의 경우 센터 직원들이 지회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센터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지회 업무를 수행하면 행정의 지적사항이 된다. 이에 농아인들의 의사소통 지원과 회원 관리, 민원 해소 등을 위한 지회 업무 전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지회 전담 인력 지원과 통역사 확대, 24시간 센터 운영을 통해 농아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도교육청의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가 구축된 만큼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에 드론 분야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도내 화장장 운영 개선 촉구

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2022. 03. 29.



오인환 충남도의원

- 코로나19로 화장장 포화... 5분 발언 통해 도내 화장장 현대화 강조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포화상태인 도내 화장장의 운영상태를 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내의 부족한 화장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화장시설이 있는 곳은 천안, 공주, 홍성 3곳뿐이고, 총 18개의 화장로가 가동 중이다. 화장로당 1일 평균 5회씩 운영된다.

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급증해 화장장 예약이 어렵게 되자 5~6일장을 치르는 일이 빈번해졌다. 장례문화를 떠나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라며 “효율적인 운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3월 중 도내 화장장의 이용현황을 보면, 총 988건 중 도민 이용이 684건, 타 시도 주민 이용이 304건으로 31%는 외지인이 이용하고 있다”며 “도민이 도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외부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화장을 하는 것이다. 도민을 위한 화장장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일 평균 5회 운영 중인 화장로 운영 횟수를 늘리고 가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화장장 현대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1.18.
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충남도의회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선정된 천안아산 KTX역세권 및 R&D집적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대책을 주문했다.

18일 열린 제33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아산KTX역세권과 R&D집적지구 성공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다”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하지만 불과 1.4km 밖에 되지 않는 천안아산 KTX역과 R&D집적지구 사이의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며 “역과 지구 사이의 선로 하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성 검토를 마치는 등 긴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또 “그 결과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협조 약속도 받았다. 이동 문제가 해결됐고, KTX역사 상업화·업무지원시설 활용은 전국에서 최초 시도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우리도의 결심만 남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대선 공약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충남도의원,
**천안아산
KTX역세권-R&D지구
활성화 대책 주문**

전국 최초
KTX역사 상업화 및
업무지원시설 활용 위한
조속 결단 강조



도정질문
1

**방한일 충남도의원
“시장 격리곡 정상 수매가로 매입해야”**

시장격리곡 입찰방식 개선 촉구 및
농민피해 해소 위한 계획 질의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강행해
농민들의 원성만 키웠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1년산 시장 격리곡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작년 가을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결국 지난 12월 1차 시장격리를 하기로 결정, 입찰을 통한 매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강행해 농민들의 원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받는 역공매 방식은 문제가 크다”며 “깜깜이 입찰 공매 방식 탓에 기존 20만 톤 매입계획에서 14만 5,280톤 밖에 매입이 안됐다”고 전했다.

이어 “평균 낙찰가도 40kg 포대당 6만 3,700여 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보다 1만여 원이 나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 의원은 “충남도는 농업인들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번 시장격리로 피해를 본 충남의 농업인들을 위한 충남도의 지원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밝혔다.



도정질문
2

이선영 충청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노사민정 협의체' 제안

노동자 사망사고 후 대응은 사후약방문...
지방정부, 산업재해 예방 나서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로 귀한 생명을 잃으신 현대제철 두 명의 노동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숙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구분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며 충남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만 2,000여 명의 고려인 동포가 우리 충남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인데, 대부분 중도 입국하는 아이들이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므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도정질문
3

정광섭 충청도의원,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

제335회 임시회 도정질문 통해
도유지 매각과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 촉구



수십 년 동안
일구어온 내 터전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알아달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안면도 도유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에 나섰다.

정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해주거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해달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진입로 포장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면도 전체 임야 중 도유지가 75%이다. 이중 태안군 도유지 내 사유지는 1,633필지 173.7ha이며, 완전 맹지가 768필지 83.8ha로 47%를 차지한다. 보령시는 19필지 5.212ha이며, 맹지가 16필지 5.064ha로 84.2%에 달한다.

정 의원은 "맹지는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지 내에 있어 건축행위를 못하는 사유지를 뜻한다"며 "안면도 내 맹지들이 많다 보니 도유지 내 사유지에 집을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유지 내 맹지는 건축법상 집이 오래되고 낡아도 다시 지을 수가 없다. 수리만 가능한데 이 수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수십 년 동안 일구어온 내 터전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도정질문

4

안장헌 충남도의원 '부동산 교란 사각지대' 대책 촉구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도 활용으로
도시과밀화 야기 및 통학로 안전 위협



주차면 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다

충남도의회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민간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충남에 총 21개소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다.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때문에 주차면 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및 도시과밀화, 주민 간 갈등이 야기돼 주차난, 정주 여건 미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심의 시 시설기준, 주거·교육·교통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불법 주택 전용 시 이행 강제금 제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상임위원회

18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미래차 산업발전·이주민 정책
연구모임 등
10개 안건 협의·의결

의회운영위원회

충남도의회, 결산검사 위원 정수 확대로 법체계 정합성 확보

충남도의회가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확보와 완결성 강화에 나섰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18일 제33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등 총 10개의 안건을 협의·의결했다. 또 김찬배 사무처장으로부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홍 위원장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의원 정수 확대로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19일~24일
 기획조정실 · 경제실 ·
 충남도립대 ·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

미래전략 수립,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육성,
 신성장동력 사업 등 제안

기획경제위원회

“도민이 체감하는 양극화 해소 방안 추진하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현)는 19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기획조정실에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 추진, 경제실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충남도립대학교에 지역인재 육성 방안, 미래산업국에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창출 방안을 주문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 · 더불어민주당)

“도내 산업단지 기업 유인,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 운용으로 일자리 창출(경제실) 기여 방안”을 말하고 “충남도립대 경쟁력 활성화와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공정관리 등 관리 감독(미래산업국) 철저”를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 · 정의당)

“보편적 복지 고른 혜택지원(기획경제실), 배달업을 통한 플랫폼노동자 보호 방안(경제실)”을 말하고 “차세대 학생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충남도립대), 산업용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달라(미래산업국)”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 · 더불어민주당)

“충남형 양극화 해소 정책 모델 수립(기획조정실), 충청권 은행 설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경제실)과 협의를 통한 시스템 전면 개편(충남도립대)”을 말하고 “첨단 산업지구 시너지효과를 위한 체계적 계획(미래산업국)”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 · 국민의힘)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충남시민대학 확대(기획조정실), 외국 장수기업 같은 시군 협업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 기업사업 발전 모색(경제실)”을 전하고 “도내 기초과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과감히 늘려달라(미래산업국)”고 주문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 · 더불어민주당)

“내포신도시 성장 정책 수립(기획조정실), 충남 품목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경제실)”를 말하고 “수소 산업 선도, 미래차 핵심기술 선점에 전력, 이원화돼 있는 수소 · 전기차 업무 일원화(미래산업국)”를 조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 · 더불어민주당)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가기관 유치(기획조정실), 단기간 근로자 사고 등에 대한 대비 방법 강구(경제실)”를 주문하고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 공기업 등 확장된 취업을 위한 현황 파악 대책이 필요하다(충남도립대)”라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 · 국민의힘)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연차별 상환계획 수립(기획조정실)”을 말하고 “도시가스 공급과 사용 가구에 대한 배관 및 호스 등 사업 조속 추진으로 도민 누구도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 가져달라(미래산업국)”고 덧붙였다.

한편 기경위는 24일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꿈비채 더 행복한 주택’ 건설 사업지와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19일~25일 자치행정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등
소관 업무보고

예술인지원 확대 및
범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주문

행정문화위원회

촘촘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정책 힘쓸 것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 이하 행문위)는 19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행문위는 19일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충남도서관, 20일 청년공동체지원국, 21일 문화체육관광국, 24일 충남체육회·충남장애인체육회, 25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충남문화재단·백제문화재단 업무를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실국과 출연기관 간 소통 강화 ▲스포츠로 더 행복한 충남 ▲문화재단과 의회 간 소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

“현실성 있는 다자녀 인정기준 보완으로 자녀 키우기 좋은 충남 앞장, 문체국은 소관 출연기관과 소통 강화해 갈 것”을 주문하고 “체육회 관련 대표선수 훈련 여건 개선과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으로 경쟁력 향상과 우수선수 일자리 창출 노력, 역사문화연구원은 공채 직원 채용 규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

“난임·불임 치료 등 의료환경 조성, 청년에게 구직활동·문화·건강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 안정 정착”을 전하고 “건강수명(평균 65.6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 정책, 백제 역사문화 발굴사업(서산 미래여래삼존상 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강구, 문화재단 사업추진 시 의회와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

“인구·출산장려정책에 있어 가능한 지원 확대, 국제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개최 및 많은 국제대회 충남 유치 노력”을 당부하고 “대둔산 도립 공원 관광 개발 설계 용역비 1회 추경 반영과 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 발굴·홍보 앞장”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

“도내 업체 계약체결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충남청년 희망카드 지원대상 연령범위(23~25세)와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을 말하고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발굴·보

급, 충남 독립운동가 백서 발간사업 독립운동가 발굴 시 자료와 고증을 통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진 정책 개선과제 발굴 강조, 장애인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충남형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를 말하고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 유형·중증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

“기본 생계권 보장을 위한 도 예술인지원사업 확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국제초단편영화제 사업 지원 보강”을 전하고 “충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 대회 일정 맞춤과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방법 등 일관된 규정 마련 필요,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사업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문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에도 외래어 표현이 많다. 우리말로 순화해 국어사용 촉진에 앞장서 달라”고 지적했다.



19일~20일 저출산보건복지실 · 4대의료원 · 여성가족정책관 등 소관 업무 보고

저출산 정책분야의 선도적인 충남 주문

복지환경위원회

선도적인 저출산 정책 및 성평등지수 제고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복환위)는 선도적인 저출산 정책 수행과 충남 성평등지수를 높여가기 위한 대응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19일과 20일 열린 복환위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이야기됐다.



저출산 정책 수행과 충남 성평등지수를 높여가기 위한 대응 전략 방안을 논의

오인환 위원장(논산1 · 더불어민주당)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고 “특히 충남 성평등지수가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성평등지수 개편안 분석과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 · 더불어민주당)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공모 시 공정한 선정(저출산보건복지실)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후 감면대상자에 대한 혜택 제공(홍성의료원)”을 말하고 “교육 사업과 참여인원 다양성에 더욱 힘써달라(여성정책개발원)”고 제안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 · 더불어민주당)

“그간 홍성뿐만 아니라 보령, 서천 등 인근 시·군에 있는 산모들이 원거리 출산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산부인과에 뒤지지 않는 출산과 사후조리 시스템을 제공에 힘써달라(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 · 더불어민주당)

“충남 4개의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 자연 감소가 진행 중이다. 저출산 정책 분야의 선도적인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해달라(저출산복지실)”고 말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및 동향 분석(청소년진흥원)”을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 · 더불어민주당)

“도내의 산모도우미 처우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며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산모도우미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집행부에서 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을 강구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 · 더불어민주당)

“의료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힘써달라”고 말하고 “또 격리 공간에 대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에 신경 써 달라(4대 의료원)”고 당부했다.

19일~25일 동물위생시험소 ·
농업기술원 · 농림축산국 ·
해양수산국 등 업무보고

축산인 · 농업인 · 어업인
소득향상 방안 마련 요구

농수산해양위원회

코로나 이후에 맞는 정책 수립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9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축산농가를 위한 조직개편(동물위생시험소),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농업기술원),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방안 마련과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농림축산국), 어업인 소득 제고(해양수산국) 등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와 세부 정보 부실(동물위생시험소),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 보조금 중복 · 집중 문제 해결이 미비하다(농업기술원)”라고 말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 마련과 농업용 기자재 지원방안(농림축산국), 환경생태를 위한 금강 해수유통 정책 강력 추진(해양수산국)”을 당부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 · 더불어민주당)

“동물위생시험소는 공무원을 위해 있는 조직이 아닌 축산농가를 위한 조직”이라며 “축산인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축산인과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 · 더불어민주당)

“이직률 감소 방안 강구(동물위생시험소),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농업기술원)”를 말하고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농림축산국), 코로나로 인한 어업환경과 판매 · 유통 체계 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해양수산국)”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 · 국민의힘)

“지소 직원 처우개선에 힘쓰고(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을 농업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근본적 대책 마

련하라(농림축산국)”고 전하고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추진이 미흡하다(해양수산국)”라고 지적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 · 더불어민주당)

“의회나 집행부가 변경돼도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 철저(동물위생시험소), 농업경쟁력 확보에 노력해달라(농업기술원)”고 전하고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정책 수립(해양수산국)”을 당부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 · 더불어민주당)

“도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질의(동물위생시험소), 과수 화상병은 재난이니 약제 방제 철저(농업기술원)”를 주문하고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생활자금 지원 확대(농림축산국)와 지역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판로 확대(해양수산국)”를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 ·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도내 축산물 유통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동물위생시험소), 버섯 수확 후 폐배지 처리 및 활용 방안 강구(농업기술원)”를 말하고 “농업 유통 · 가공 · 판매 시스템 구축 및 광역 먹거리 센터 정책 강화(농림축산국), 수산 사업 추진 시 어업인 혜택 면밀 검토(해양수산국)”를 제안했다.

19일~20일
재난안전실 · 교통연수원 ·
소방본부 · 건설교통국 ·
종합건설사업소 업무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 건설업체 지원,
도민 혜택 균등 확대 등 당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역건설업체 도급률 향상 주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 이하 안건소위)는 19일에는 재난안전실과 교통연수원, 소방본부, 20일에는 건설교통국과 종합건설사업소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계양 위원장(비례 · 더불어민주당)

“많은 화재의 발생 원인은 전기 부주의에서 오는 만큼 ‘문어 발식 콘센트’의 화재 취약성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요구하고 “충남도 건설사업 수의계약 기준금액 재검토는 물론 재해 예방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 · 국민의힘)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무단 방류로 금산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빨리 신속한 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도민 재난 안전 구호 등을 위한 건축설계를 신속하게 진행, 금산소방서 신속사업 올해 안 착공”을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 · 더불어민주당)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확대 운영 추진, 도민안전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군별 고른 혜택 제

공을 해달라”고 전하고 “과태료 체납 징수 활동 강화, 종합건설사업소 수의계약사업 상향으로 지역 건설업체 혜택 확대 추진”을 요구했다.

최훈 위원(공주2 · 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 보완 · 추진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말하고 “공공건축물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확대, 어려운 지역업체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강화”를 주문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 · 더불어민주당)

“저조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개선을 위해 지역생산물품 사용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도내 사업장의 겨울철 일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를 강조했다.

한편 안건소위는 업무 보고 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도의회와 집행부,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애로사항과 건의 등 의견을 나누며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

24일~25일
교육지원청·직속기관·
충남도교육청 등 업무보고

교육격차 해소,
코딩교육 내실화 강조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 진로 교육 전문성 확보 주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24일과 25일 교육지원청·직속기관·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듣고, 정책 제안을 통해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학교 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커져 교육격차 해소, 심리 정서와 사회성, 교육 회복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학교 정착과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를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

“생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중시하는 향토교육은 중요하다.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향토교육 진흥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하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방역 강화 대책 추진, 학생건강을 위한 방역 약품 성분조사 철저”를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

“코딩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코딩 필요 인력 확보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달라”고 말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를 특정 지역만이 아닌 많은 시군에 확대 설치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

“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다국어 강좌를 확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학교 기간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불안 해소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

“진로상담 교사의 진로 교육 전문성 확보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농어촌지역학교 통학버스 지원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형평성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예결특위...충남도 4억 3,518만 원 삭감, 도교육청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24일 충남도, 28일 도교육청 1회 추경 예산심의 가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이하 예결위)는 지난 3월 24일 충남도에 정밀한 예산분석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28일 충남도교육청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24일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건 4억 3,518만 원을 삭감했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7,387억 2,400만 원 보다 2,742억 3,700만 원 증액된 9조 129억 6,100만 원이다.

이날 예결위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을 조정했다. 특히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방한일 위원장(예산1·국민의힘)과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집행부는 예산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

요 예측을 통해 예산과 행정 낭비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승인을 받은 봉사단체가 사회복지과가 아닌 장애인복지과에 예산 편성이 돼 있다. 지난 4년간 지적한 사항인데도 수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계양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는 도민을 위해 정책추진에 좀 더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도유림 내 사유림 매입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도유림이 전혀 아닌 땅을 매입하려 한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도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지적했고,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4,000% 증액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학 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고, 양금봉 위원

(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 시 정확한 활용 파악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자가 진단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전했다.

또한 28일 2022년도 충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4조 2,349억 원 대비 2,162억 원(5.1%)이 증가한 총 4조 4,511억 원 규모다.

특히 예결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선 회복과 방역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비롯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예산이 적절히 편성돼 있는지 자세히 살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등하굣길 학생 교통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청·지자

체 간 이견으로 일어난 예고된 참사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을 위한 안전조치에 부디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는 행정 절차를 강요하면서 당사자들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예산심의 중임에도 버젓이 완료된 사업들도 부지기수다. 법적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추진해달라”고 지적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조례, 법 등 정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지정 작용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특별위원회

백제술발전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백제술발전특위 “백제 술 대중화 연구 필요”

농림축산국, 전통주산업 현황 등 업무보고... “전통술 연구·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충남도의회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익현·이하 백제술발전)’가 백제 술 대중화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백제술발전은 1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 농림축산국으로부터 백제 술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통주 산업에 대한 현황과 비전을 듣고, 세부적인 활성화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전익현 위원장(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백제시대 술에 대한 문헌 등의 연구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힘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백제 술의

선정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구성된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운영되며,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윤철상 부위원장, 조길연·김복만·김영수·김한태·방한일·안정현·조승만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백제 술의 선정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재정건전성 확보·인력확보 방안 등 현안 질의... 경영능력 평가 및 도덕성 검증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월 27일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특위는 임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주의료원의 현실적인 운영 방향과 현안 해결 방안 등을 질의하며 경영·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위원들은 만성적인 적자 및 재정건전성 문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이용자나 직원들의 만족도 미흡 등을 지적하며 후보자에게 해결방안을 물었다.

이날 임 후보자는 공주의료원 운영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최고의 서비스, 최선의 진료, 신뢰받는 의료원’을 제시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공주의료원은 지역민에게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적인 합리성을 추구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충족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조직·경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우수하고 성실한 인재를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공공조달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공공조달특위 “학교 물품 지역업체 이용 저조”

공공조달특위 3차 회의... 3년간 도내 초·중·고교 공공조달 현황 공유
물품구매 지역 수주율 공사·용역의 절반 수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철)가 각급 학교의 지역 물품구매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위 위원들은 3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의 최근 3년간 공공 조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그 결과 도내 학교 공공 조달은 공사·용역 부문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물품구매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도내 학교의 공공 조달(계약) 현황은 총 33만 7,791건, 8,090억 9,100여만 원이다. 이중 지역업체의 수주율은 공사 89%, 용역 81%였지만, 물품구매 수주율은 4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물품구매에 있어 천안과 금산만 지역업체 수주율이 50%를 갓 넘겼을 뿐, 다른 지역은 지역업체 물품 사용률이 대부분 30~40%에 그쳐 지역 물품 구매유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복원 이정표 제시”

16일 해수유통 관련 업무 추진상황 청취, 3년 6개월 특위활동 정리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금봉, 이하 금강특위)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금강하구 생태복원 해결의 방향성을 제했다.

금강특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와 금강물 이용 관련 기관·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강하구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 힘썼다. 특히 중앙정부와 전북도 등 금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와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을 추진하며 정책 관리방안 마련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또 양금봉 위원장은 전국 317개 기관·단체가 연대한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정부 차원의 생태복원 추진사업을 펼쳐왔다.

양 위원장(서천2·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금강하구 생태환경과 지역 간 갈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금강하구 기능전환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해수 유통은 충남도를 넘어 4대강의 물 관리와 연안 생태계복원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 유통은 충남도를 넘어 4대강의 물 관리와 연안 생태계 복원의 큰 이정표가 될 것



탄소중립특위, 도내 소형원전 반대 적극 대응 주문

기후환경국장 등 5개 실·국장 참석... 탄소중립 관련 추진상황 보고



충남도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서)가 도내 소형원전 설치 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23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기후환경국장 등으로부터 2050 탄소중립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 일자리 사업, 주민복지, 기업 유치 등 도민 관점에서 고민해달라”고 말했으며, 오인환 위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보령·당진에 소형 원자력 설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민을 우선하는 정책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과정에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안장현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민간과 원활한 협의를 하고, 사업의 양과 질을 더욱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문제는 충남도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안이다. 수도권 주민을 위해 충남이 희생되어선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원전은 충남도가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미래차시장 개척 위한 과제발굴 착수

방한일 의원 대표 연구모임 발족... 도내 자동차 분야 다양한 전문가 참여

충남 미래차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도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뭉쳤다. '충남 미래차 산업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15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도내 자동차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대표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맡았으며,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의원과 자동차 관련 기업인,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11명의 회원으로 이뤄졌다.

회원들은 이날 발족식 후 가진 첫 회의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정도현 연구전략본부장으로부터 '미래자동차 동향 분석을 통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고,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과 정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한일 의원은 “자동차 부품사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래차 신시장 선점, 수출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도의회도 친환경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과 정책 마련에 주력



충남도의회, 이주민 일과 삶 개선 위한 정책발굴 나선다

이선영 의원 대표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도내 이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24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 대표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맡았고, 이공희(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등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모임은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노동과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학로 당진시 역사문화소장의 주제발표(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향한 문제 제기)에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토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다른 나라의 이주민의 지원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지역 이주민의 노동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선영 의원은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 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일과 삶의 여러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노동과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모색



의정토론회
새로운 도시 비전
'정원도시를 꿈꾸다'
01. 28. 김대영 의원

충남도의회 “정원 도시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김대영 의원 '정원 도시를 꿈꾸다' 의정토론회...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 강조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28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새로운 도시 비전 정원 도시를 꿈꾸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원 도시' 정책을 주제로 펼쳐졌다.

발제를 맡은 신구대 환경조경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과 도시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한 뒤, 파리의 '15분 도시', 싱가포르의 '파크키넥터' 등 해외 사례 등을 들며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원 도시가 아닌 정원 국가로의 발돋움 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과 박정아 충남도 산림자원과 수목원정원팀장은 각각 국가와 충남의 정원정책에 관해 설명하며, 충남 정원 도시 정책이 타지역대비 다소 부진하다고 전했다.

김대영 의원은 "삭막한 현대사회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정원 도시를 생각해 왔다"라며 "도시 성장의 잣대는 이제 개발이 아닌 살기 좋은 환경의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계룡에도 캐나다 밴쿠버의 부차드 가든(Butchart Garden) 같은 지역의 대표 정원이 필요하다. 계룡의 정원 도시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의정토론회
충남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및
지위 향상 방안 모색
 02. 22.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방한일 의원 의정토론회...
 도내 여성농업인·단체 참여해 대책 논의

충남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충남도의회와 전문가들이 뭉쳤다.

도의회는 22일 '충남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및 지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 모색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업인 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주제로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여군 여성농민회 김지숙 사무국장과 김

도혜 충남 4H 여성부회장, 충남도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태희원 책임연구원은 "농촌의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농업인의 낮은 지위 해소, 열악한 삶의 질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도입과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 여성농업인에게 친화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자들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방한일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인식 및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 종합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심의결과

총 4건 의원4
 (건의안1, 기타3)
위원회 본회의(4)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심의결과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	발의 : 조승만(대표) 방한일, 김영권, 김복만, 김대영, 정병기, 홍기후, 김은나, 장승재, 김기서 의원 (10인)	2021.12.13.	원안가결 (2022.1.18.)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2022.1.17.	원안가결 (2022.1.18.)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2022.1.17.	원안가결 (2022.1.18.)
휴회의 건	의장	2022.1.17.	원안가결 (2022.1.18.)



주요안건 처리결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결과

총 26건 의원19, 도시사5, 교육감2
(조례안14, 동의안5, 건의안4, 결의안2, 규약안1)

위원회 의회운영(1), 기획(2), 행정(6), 복합(1), 농수산(2),
안전건설(3), 교육(5), 본회의(6)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1.18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선영(대표) 조길연, 홍재표, 이공휘, 방한일, 오인철, 최 훈, 홍기후, 조승만, 이계양, 조철기, 안장현, 황영란, 한영신, 윤철상 의원(15인)	2022.1.6.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2022.1.7.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정병기(대표) 김 연, 김옥수, 김기영, 이종화, 김형도, 이영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의원(10인)	2022.1.6.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공무원직위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발의 : 김옥수(대표) 정병기, 김기영, 이종화, 김 연, 김형도, 이영우, 김은나, 김영권, 김영수, 양금봉, 김복만, 방한일, 안장현, 여운영, 오인철, 홍재표 의원(17인)	2022.1.6.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종화(대표) 정병기, 김옥수, 이영우, 김 연, 김형도, 김기영, 김은나, 정광섭, 홍기후, 이선영, 황영란, 이계양, 전익현 의원(14인)	2022.1.6.	행정문화위원회	수정가결 (2022.1.27.)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홍기후(대표) 김은나, 김기서, 지정근, 방한일, 이선영, 김옥수, 황영란, 이종화, 이계양 의원(10인)	2022.1.6.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형도(대표)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김 연, 이영우, 이종화, 김은나, 김영수, 김영권, 김복만, 오인철, 이공휘, 김한태, 방한일, 안장현, 양금봉, 여운영 의원(18인)	2022.1.6.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	2022.1.7.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	2022.1.7.	복지환경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방한일(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정광섭, 오인환, 최 훈, 황영란, 김복만, 이종화, 양금봉, 한영신, 이선영, 안장현, 오인철, 이공휘, 김한태 의원(20인)	2022.1.6.	농수산해양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한태(대표) 오인환, 김영권, 정광섭, 김기서, 김명숙, 홍기후, 김은나, 김형도, 전익현, 양금봉, 황영란, 여운영, 이종화, 방한일, 김옥수, 김영수 의원(17인)	2022.1.6.	농수산해양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최 훈(대표)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전익현, 김대영, 오인환, 윤철상, 한영신, 조철기 의원(10인)	2022.1.6.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충청남도지사	2022.1.7.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수정가결 (2022.1.27.)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충청남도지사	2022.1.7.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수정가결 (2022.1.27.)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발의 : 김 연(대표) 조철기,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홍재표, 김영수, 양금봉, 김복만, 이공휘, 김득응, 오인철, 여운영, 안장현, 김형도, 김한태, 정광섭, 황영란 의원(18인)	2021.10.25.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석곤(대표) 조철기, 김은나, 유병국, 홍재표, 김영수, 양금봉, 김옥수, 김영권, 정병기,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현, 여운영, 김복만 의원(16인)	2022.1.6.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2022.1.2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방한일(대표) 조철기,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홍재표, 김영수, 양금봉, 김기영, 이영우 의원(10인)	2022.1.6.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	2022.1.6.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	2022.1.6.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1.27.)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발의 : 방한일(대표) 정병기, 조철기, 전익현, 김명선, 조길연, 김 연, 이공휘, 이종화, 김은나, 이선영 의원 (11인)	2022.1.6.	본회의	원안가결 (2022.1.27.)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발의 : 전익현(대표) 조길연, 안장현, 김영권, 오인환, 정병기 의원(6인)	2022.1.17.	본회의	원안가결 (2022.1.27.)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	발의 : 홍기후(대표) 방한일, 김옥수, 김은나, 이선영, 황영란, 전익현, 지정근, 김기서 의원(9인)	2022.1.18.	본회의	원안가결 (2022.1.27.)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 조승만(대표) 김영권, 김명선, 오인철,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방한일, 안장현, 조길연 의원(13인)	2022.1.19.	본회의	원안가결 (2022.1.27.)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 이선영(대표) 황영란, 지정근, 전익현, 김기서, 김옥수, 홍기후, 김대영, 이공휘, 조승만, 안장현 의원(11인)	2022.1.19.	본회의	원안가결 (2022.1.27.)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	발의 : 김 연(대표)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이종화, 김형도, 이선영, 이공휘, 안장현, 오인환, 장승재 의원(11인)	2022.1.20.	본회의	원안가결 (2022.1.27.)



주요안건 처리결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심의결과

총 6건 의원6
(건의안3, 기타3)

위원회 본회의(6)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심의결과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발의 : 방한일(대표) 안장현, 이종화, 김영수, 조철기, 이선영, 이계양, 김대영, 지정근 의원(9인)	2022.3.11.	원안가결 (2022.3.15.)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2022.3.14.	원안가결 (2022.3.15.)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2022.3.14.	원안가결 (2022.3.15.)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황영란(대표) 오인환, 김한태, 김동일, 여운영, 한영신, 이영우, 김명숙, 장승재, 지정근, 이선영, 전익현, 조승만, 김명선, 양금봉, 조철기, 김은나, 이종화 의원(18인)	2022.3.3.	원안가결 (2022.3.15.)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방한일(대표) 김은나, 김명선, 김기서, 김옥수, 이선영, 황영란, 홍기후, 전익현, 지정근, 조승만, 안장현, 이공휘, 조길연, 오인철 의원(15인)	2022.3.3.	원안가결 (2022.3.15.)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김은나(대표) 양금봉, 김기서, 김명선, 김대영, 김옥수, 김영수, 김영권, 정병기, 방한일, 안장현, 여운영 의원(12인)	2022.3.4	원안가결 (2022.3.15.)



주요안건 처리결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결과

총 1건 의원1
(기타1)

위원회 본회의(1)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심의결과
휴회의 건	의장	2022.3.15.	원안가결 (2022.3.16.)



주요안건 처리결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의결과

총 58건 의원40, 도지사15, 교육감3
(조례안36, 예산안3, 동의안8, 건의안5, 기타3, 사직3)

위원회 운영위(3), 기경위(9), 행문위(9), 복환위(6), 농해위(6),
안건소위(7), 교육위(5), 본회의(10), 예결특위(3)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2022.3.15.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3.15.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3.15.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안장현(대표) 조승만, 방한일, 김영수, 전익현, 윤철상, 김영권, 김명숙, 이선영, 김명선, 김기서, 오인철, 이공휘, 김은나, 조길연 의원(15인)	2022.3.3.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공휘(대표) 김 연, 정병기, 안장현, 방한일, 조승만, 이선영 의원(7인)	2022.3.3.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방한일(대표) 김은나, 안장현, 조길연, 이공휘, 오인철, 이선영, 김 연, 장승재, 양금봉, 홍재표, 김복만, 김영권, 김한태, 김기영, 유병국 의원(16인)	2022.3.3.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대영(대표) 이공휘, 이선영, 조승만, 안장현, 조길연, 오인철, 방한일, 양금봉, 지정근, 전익현, 김복만, 이계양, 최 훈 의원(14인)	2022.3.3.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2022.3.29.)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발의 : 이종화(대표)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김 연, 김형도, 이영우, 김복만, 조길연, 방한일, 정광섭, 김석곤 의원(12인)	2022.3.3.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정병기(대표) 김옥수, 김 연, 김기영, 이종화, 이영우, 김형도,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방한일 의원(11인)	2022.3.3.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기영(대표) 정병기, 김옥수, 이종화, 김 연, 김형도, 이영우, 정광섭, 김석곤, 최 훈 의원(10인)	2022.3.3.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 : 홍기후(대표) 오인환, 김동일, 김한태, 김 연, 여운영, 한영신, 양금봉, 황영란, 오인철, 윤철상, 정병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의원(15인)	2022.3.3.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2022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행정문화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기서(대표) 오인환, 김한태, 김동일, 홍기후, 황영란, 여운영, 한영신, 윤철상, 방한일, 조승만, 이선영, 이종화, 김옥수, 김은나, 정광섭, 장승재 의원(17인)	2022.3.3.	복지환경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오인환(대표) 홍기후, 한영신, 이영우, 지정근, 황영란, 김동일, 최 훈, 김명숙, 김기서, 이계양,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조철기, 조승만 의원(16인)	2022.3.3.	복지환경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홍기후(대표) 오인환, 김동일, 김한태, 황영란, 한영신, 여운영, 양금봉, 윤철상, 오인철, 김 연, 정병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안장현 의원(16인)	2022.3.3.	복지환경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방한일(대표) 김기서, 홍기후, 이영우, 이종화, 김한태, 김동일, 황영란, 김은나, 한영신, 김기영, 오인환, 여운영 의원(13인)	2022.3.3.	복지환경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오인철(대표) 김동일, 김한태, 양금봉, 한영신, 황영란, 홍기후, 여운영, 김명숙, 이공휘, 정광섭, 김복만, 이종화, 조길연, 김석근, 조철기, 조승만, 윤철상, 김은나, 정병기, 방한일, 이선영 의원(22인)	2022.3.3.	복지환경위원회	수정가결 (2022.3.29.)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복지환경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기서(대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의원(7인)	2022.3.3.	농수산해양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정광섭(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한태, 이공휘, 방한일, 김 연, 이종화, 조길연, 김형도, 김옥수, 김영수, 정병기 의원(17인)	2022.3.3.	농수산해양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득응(대표) 김영권, 김기서,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의원(7인)	2022.3.3.	농수산해양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장승재(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이영우, 김한태, 이선영, 이계양, 홍기후, 한영신, 최 훈, 조승만, 지정근 의원(16인)	2022.3.3.	농수산해양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명숙(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윤철상, 장승재, 오인철, 김동일, 김석근, 정병기, 김영수,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홍기후, 한영신,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의원(21인)	2022.3.3.	농수산해양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명숙(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윤철상, 장승재, 오인철, 김동일, 김석근, 정병기, 김영수,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홍기후,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의원(20인)	2022.3.3.	농수산해양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수정가결 (2022.3.29.)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계양(대표) 김대영, 지정근, 김 연, 장승재, 김은나, 전익현 의원(7인)	2022.3.4.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대영(대표) 이계양, 지정근, 김 연, 김은나, 전익현 의원(6인)	2022.3.4.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 훈(대표)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의원(6인)	2022.3.4.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계양(대표) 김대영, 지정근, 김 연, 김은나, 전익현 의원(6인)	2022.3.4.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전익현(대표) 김대영, 지정근, 이계양, 최 훈, 김형도, 이영우, 장승재, 이선영, 오인환, 정병기, 김명숙, 양금봉, 조철기, 김은나, 홍재표 의원(16인)	2022.3.4.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2022.3.3.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양금봉(대표) 김은나, 김석곤, 홍재표, 유병국, 조철기, 황영란, 전익현 의원(8인)	2022.3.4.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은나(대표) 양금봉, 김기서, 안장현, 조철기, 김영수, 김석곤, 홍재표, 유병국, 김대영, 방한일, 김옥수, 김영권, 정병기, 여운영 의원(15인)	2022.3.4.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조철기(대표) 윤철상, 김석곤, 오인철, 김동일, 김영수, 양금봉, 김은나, 유병국, 홍재표, 김대영, 최 훈, 조승만 의원(13인)	2022.3.4.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2022.3.2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교육감	2022.3.14.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2022.3.2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교육감	2022.3.3.	예결특위	원안가결 (2022.3.2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예결특위	수정가결 (2022.3.2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청남도지사	2022.3.4.	예결특위	원안가결 (2022.3.29.)
이영우 의원 사직의 건	이영우 의원	2022.3.21.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김동일 의원 사직의 건	김동일 의원	2022.3.22.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김 연 의원 사직의 건	김 연 의원	2022.3.22.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2022.3.15.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의안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소관위원회	심의결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2022.3.28.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 이종화(대표) 김은나, 김옥수, 정병기, 김형도, 지정근, 홍기후, 조승만, 방한일, 이선영, 조길연, 정광섭, 김기서, 황영란, 김한태, 오인환, 한영신, 김동일, 여운영 의원(19인)	2022.3.3.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발의 : 방한일(대표) 이선영, 홍기후, 김은나, 김옥수, 조승만, 김기서, 황영란 의원(8인)	2022.3.15.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발의 : 조승만(대표) 김옥수, 황영란, 지정근, 홍기후, 방한일, 김기서, 김은나, 이선영, 한영신, 전익현, 조길연, 조철기, 장승재, 최 훈,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오인철 의원(19인)	2022.3.16.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발의 : 김명숙(대표) 김영권, 김기서, 장승재, 윤철상, 김득응, 김영수, 홍재표 의원 (8인)	2022.3.21.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 김기서(대표) 홍기후, 양금봉, 조승만, 김대영, 이공휘, 김명숙, 이계양, 김은나, 김영권, 장승재 의원(11인)	2022.3.24.	본회의	원안가결 (2022.3.29.)

포토 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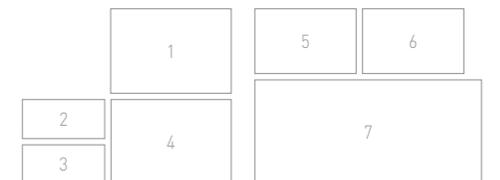
Photo Courtesy



1월

- 01.03. 1- 충남도의회는 홍성군 충남보훈공원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임인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 01.14. 2- 김명선 의장은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4-허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 01.17. 3- 김명선 의장, 전익현 제부시장, 조길연 제2부시장, 안장현 기경위원장, 정병기 행문위원장, 오인환 복환위원장, 김영권 농수해위위원장은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01.19. 4- 김명선 의장, 오인환 의원, 김동일 의원은 공주 리버스컨벤션에서 열린 2022년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5- 김명선 의장, 정병기 의원은 충남도청 작은 미술관에서 열린 충남 문화상 수상자 작품 특별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 01.21. 6-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 장승재 의원, 김득응 의원, 김기서 의원, 김명숙 의원, 윤철상 의원은 21일 농업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01.24. 7- 김명선 의장, 오인환 의원, 황영란 의원, 김한태 의원, 조승만 의원, 이종화 의원은 홍성의료원 별관에서 열린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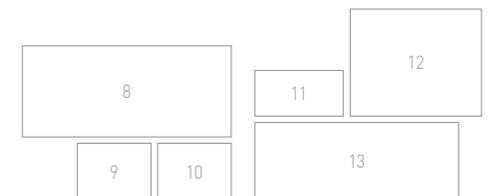


2월

- 02. 09. 08 - 김명선 의장, 방한일 의원, 이선영 의원은 제2기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 02. 15. 09 -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청에서 열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특강에 참석했다.
- 02. 16. 10 - 김명선 의장, 안장현 의원은 덕산 스피러스 리솜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3월

- 03. 07. 11 -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기업투자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 03. 08. 12 - 김연 의원, 김옥수 의원, 김명숙 의원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7회 충청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했다.
- 03. 12. 13 - 장승재 의원, 김옥수 의원, 김영수 의원은 서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0회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3월

- 03. 14. 14 -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03. 22. 15 - 김명선 의장, 양금봉 의원, 조승만 의원, 이종화 의원은 홍주 문화회관에서 열린 2022년 세계물의를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 03. 23. 16 - 김명선 의장, 이계양 의원은 종근당건강 당진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 03. 24. 17 - 김명선 의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 03. 25. 18 - 김명선 의장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불교와 함께하는 충남여성 안전 캠페인에 참석했다.
19 - 김명선 의장, 전익현 부의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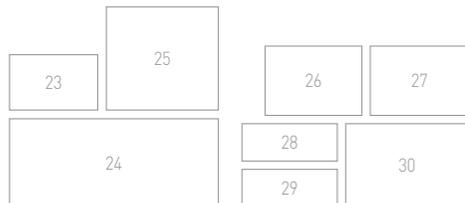
- 03. 28. 20 - 김명선 의장, 안정현 의원은 아산 도고면 캠프연수원에서 열린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발대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 03. 30. 21 -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충청남도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 03. 31. 22 - 김명선 의장, 이선영 의원은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첨단금속소재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14	15	20	21
17	16	22	
	18		
	19		



3월

- 03. 31. 23 - 김명선 의장, 김기영 의원, 방한일 의원은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충남농어업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 24 - 김명선 의장, 정병기 의원, 이공휘 의원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 자치경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 25 - 전익현 부의장, 안장현 의원, 김영권 의원, 조철기 의원은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열린 충남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개시 행사에 참석했다.



4월

- 04. 01. 26 - 김명선 의장은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타운 홀 미팅에 참석했다.
- 04. 02. 27 - 김명선 의장은 2022 대한민국 윗놀이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했다.
- 04. 03. 28 - 김명선 의장, 정병기 의원은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충남 아산 FC 홈개막 경기에 참석했다.
- 04. 05. 29 - 김명선 의장은 공주시 환경성 건강센터 일원에서 열린 제77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 04. 06. 30 - 김명선 의장은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2022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



◆ 회기 : 4회 41일 |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3회 26일
 ※ 예비일수 : 99일 ※ 연간회의 가능 일수 : 140일

회기별	기간	주요안건	비고
제334회 임시회	1. 18.(화)~1. 27.(목)(10일간) ※ 본회의2, 위원회6, 공휴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포함)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정(1.1.) · 설 연휴(1.29.~2.2.)
제335회 임시회	3. 15.(화)~3. 29.(화)(15일간) ※ 본회의3 위원회5, 예결특위3, 공휴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조례 제 · 개정안 등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일절(3.1.) · 대통령 선거(3.9.)

결산검사[4. 15.(금) ~ 5. 4.(수)] : 20일

제336회 임시회	4. 27.(수)(1일간) ※ 본회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안 등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날(5.5.) · 어버이날(5.8.)
제337회 정례회	6. 8.(수)~6. 22.(수)(15일간) ※ 본회의2, 위원회7, 예결특위2, 공휴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시지방선거(6.1.) · 현충일(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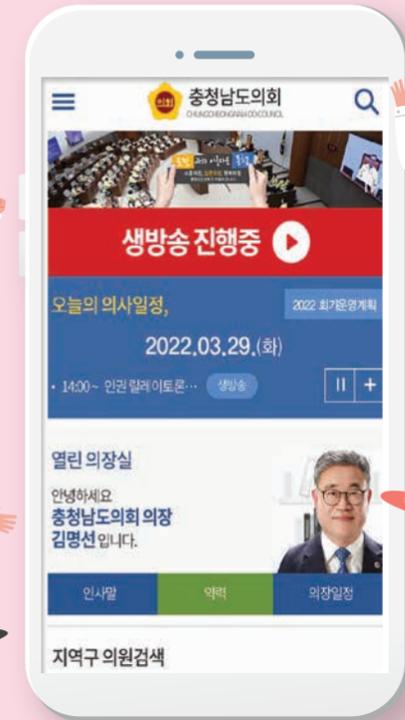
도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세상 속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1.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council.chungnam.go.kr) 입력
2.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 방청 안내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5-528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문의 총무담당관실 041-635-5054

방청시 유의사항 ※ 아래사항은 금지됩니다.

1. 방청석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3.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의회소식 → 간행물 → 의회소식지 신청

※ “충남의회”는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 → 간행물 → 의회소식)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041-635-5385 / embo123@korea.kr